

Business Focus

COP29 Review 바쿠(Baku) 합의



November 2024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E 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E yeom@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E mijujung@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COP29 개요	3
COP28 이행 경과	4
COP29 비전을 이루는 축(Pillar)과 주요 의제	6
COP29에서 상정된 14개 Action Agenda	8
바쿠(Baku) 합의문 채택	10
KPMG의 View	11

COP29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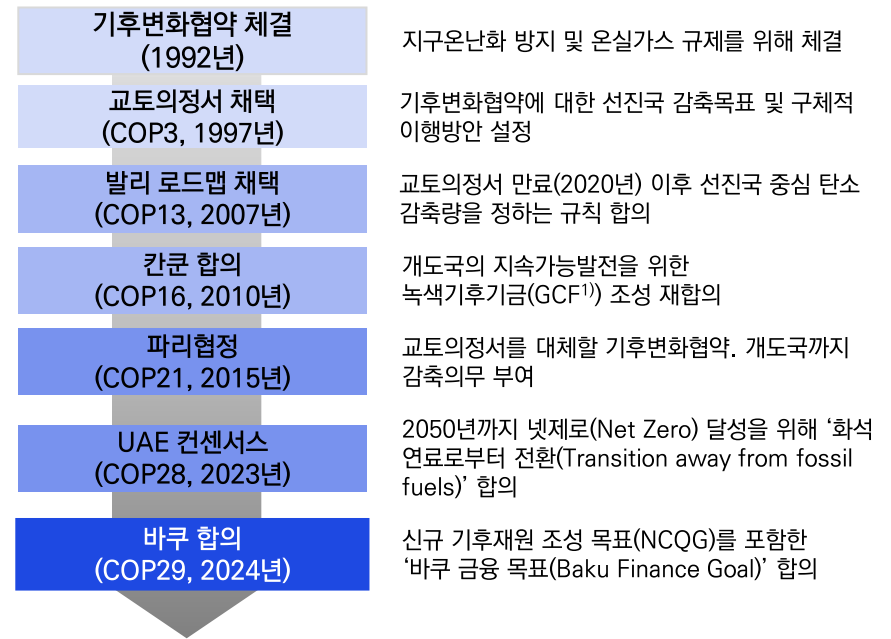
2024년 11월 11일~11월 24일까지 바쿠에서 개최된 COP29는 기후금융, 탄소 거래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 특히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이 첨예하여 일정 연장을 거듭한 끝에 최종 합의 도출

제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항목	내용
장소	-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 Azerbaijan)
기간	- 2024년 11월 11일 ~ 11월 24일 (정상회의 : 11월 12일~11월 13일)
참가 규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약 198개국) 정부 대표, 금융 및 경제계, 기후, 종교계 관련 인사 등 4만여 명
주요 의제	-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¹⁾) 수립 -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지침 논의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²⁾) 달성을 위한 검토 및 조정 - 아제르바이잔이 제안한 기후금융행동기금(CFAF ³⁾) 출범 논의 -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논의 - 농민을 위한 바쿠 하모니아 기후 이니셔티브 제안 -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방안 논의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 Note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Note 3): Climate Finance Action Fund

주요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Green Climate Fund

COP28 이행 경과

2023년 COP28에서 당사국은 전 지구적 이행 점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등에 합의했으나, 파리협정 1.5°C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

COP28(UAE 컨센서스) 합의문 주요 내용

<p>전 지구적 이행 점검 (Global Stocktake, G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협정 내 지구 평균기온 1.5°C 상승 제한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형평성과 과학에 근거하여 평가
<p>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확대하며,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발전소 신속히 폐기 및 신규 허가 제한
<p>‘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¹⁾를 지원하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4년간 임시로 운영

Source: UNFCCC,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자연재해 등 극심한 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등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을 포함하며, 피해 복원(recovery) 및 재건(reconstruction), 재활(rehabilitation) 등을 포괄

COP28 합의문 이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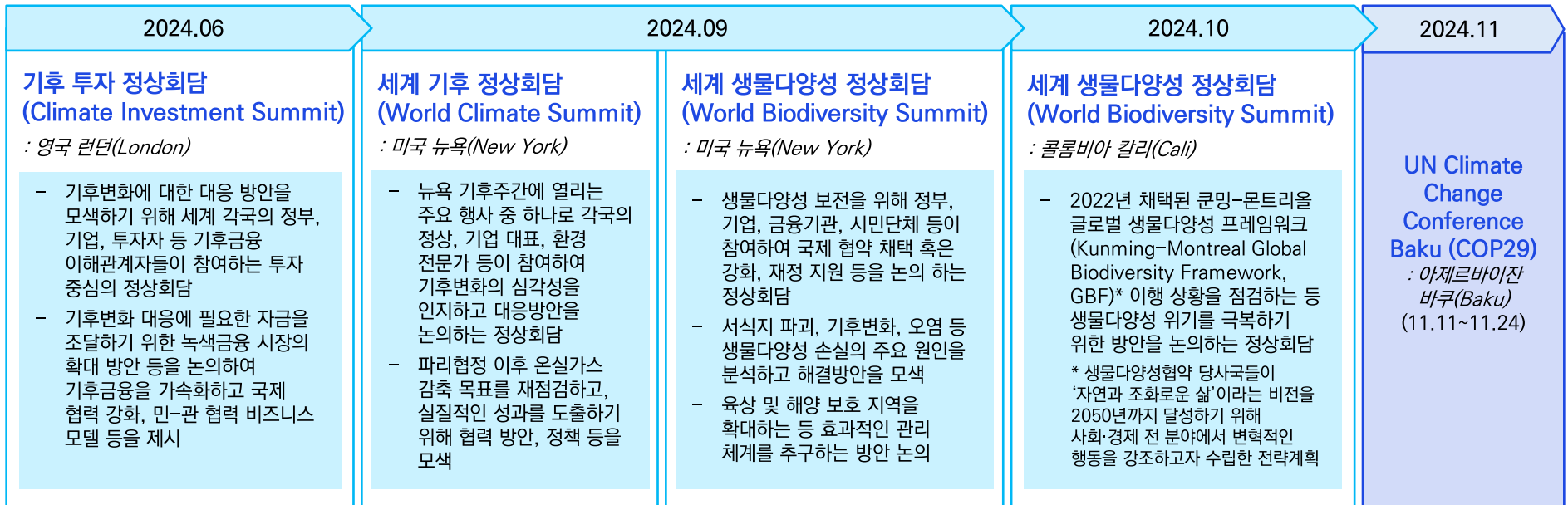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3%나 증가하여 파리협정 1.5°C 제한 목표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 부문(26%) 다음으로 운송 부문(15%)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특히 국제항공 부문의 배출량이 급등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설 용량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였고, 2024년은 약 20%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은 2030년까지 2.7배 증가하여 현재 각국의 목표를 약 25% 초과하나, COP28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제기금이 2025년 최초로 지급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실과 피해 기금은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출연 약속으로 약 7억 달러 이상이 모였으며, 한국도 약 700만 달러 공여

Source: UNEP, IEA, UNFCCC,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참고] 2024년 기후 정상회담 로드맵

COP29를 앞두고 기후 투자 정상회담, 세계 기후 정상회담, 세계 생물다양성 정상회담에서 기후금융, 파리협정 이후 목표 재점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

COP29까지 주요 마일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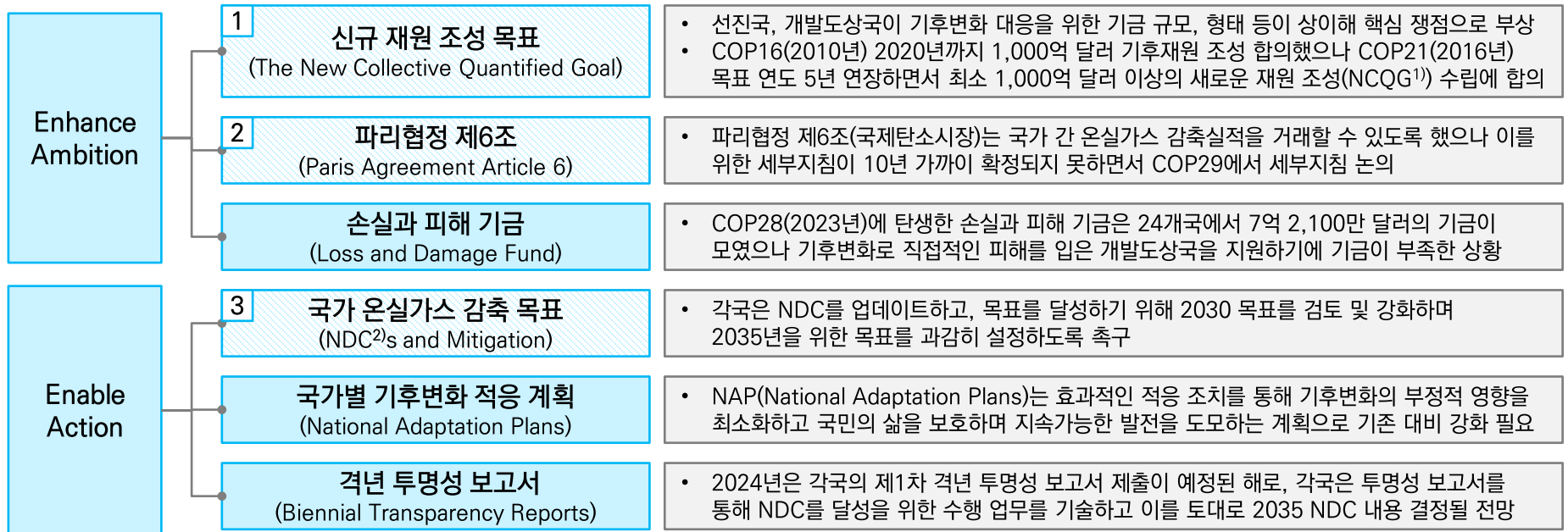


Source: World Climate Foundation,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COP29 비전을 이루는 축(Pillar)과 주요 의제

COP29 비전을 이루는 2가지 축은 목표를 높이고(Enhance Ambition) 행동을 촉진(Enable Action)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등이 주요 논의 대상

목표를 높이고(Enhance Ambition) 행동을 촉진(Enable Action)하기 위한 6가지 주요 의제



Source: COP29 Azerbaijan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The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ote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P29 비전을 이루는 축(Pillar)과 주요 의제 - 논의사항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COP29를 통해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 주도 연간 최소 3,000억 달러 및 공공·민간 재원 합쳐 연간 최소 1조 3,000억 달러 마련,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에 관한 ‘파리협정 제 6.4조’ 세부지침 도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당사국 합의 완료

	1 신규 재원 조성 목표(NCQG)	2 파리협정 제6조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5년까지 선진국 주도 연간 최소 3,000억 달러,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합쳐 연간 최소 1조 3,000억 달러로 기후재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탄소배출권¹⁾ 거래 규정에 관한 ‘파리협정 제6.4조’ 세부지침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브라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조정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목표 금액, 공여국 확대 여부, 산정 방식 등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거나 동원하는 기후재원의 연간 목표 명시(특정 기간 혹은 목표 연도까지 기후재원) 개발도상국 및 기타 요소들에 대한 핵심적인 국제적 지원 목표를 삼아 전 지구적으로 또는 개발도상국 안에서 이뤄지는 연간 투자 목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세부지침에 합의함으로써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효율적으로 연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연간 2,500억 달러) 절감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 유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NDC 목표 상향 조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5년까지 NDC를 81%로 상향 조정 브라질, 2025년 자국에서 열릴 COP30을 앞두고 새로운 NDC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9~67% 감축하겠다는 목표 제시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S²⁾), 합성연료 등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들이 기여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화재 등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와 거버넌스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 협력 국가, 중동 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의 반대로 전 세계 차원의 NDC 합의 촉구에 대한 분열 지속

Source: UNFCCC,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산림 보호나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권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Note 2): Carbon Capture and Storage

COP29에서 상정된 14개 Action Agenda

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 기후금융행동기금·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등을 비롯한 총 14개의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

기후금융행동기금(CFAF)를 비롯한 14가지 Action Agenda 논의

1 기후금융행동기금 (CFAF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이 창설 화석연료 생산국가 및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 초기 모금 라운드는 10억 달러 목표 	기후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는 인간 개발 바쿠 이니셔티브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건강, 청소년 복지 등 인적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
기후금융, 투자 및 무역을 위한 바쿠 이니셔티브(BICFIT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금융, 투자 및 무역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 	3 농민을 위한 바쿠 하모니아 기후 이니셔티브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분야의 협력 촉구 여성 및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촉진
그린 에너지 특구 및 연결망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인 협업을 통한 경제, 인프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 서약 	기후 행동을 위한 물 생태계 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촉구
2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전 세계 ESS 용량 1,500GW 확충 2040년까지 전력망 8,000만 km 추가 목표 	회복력 있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MAP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 부문의 협력 강화 선언
수소 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 수소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와 규제, 기술, 관련 금융에 대한 표준화 논의 	관광 부문 내 강화된 기후 행동 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언
UN 기후변화협약 휴전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림픽 기간에 휴전했던 것과 같이 기후와 평화를 위해 COP 기간에 휴전을 제안 	4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메탄 서약을 보완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 목표 논의
그린 디지털 액션 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 기반 기후변화 긍정적 영향 제고 정보통신 부문의 배출량 감축 촉진 유도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 (BTP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 준비 및 제출 과정을 돕기 위한 플랫폼

Source: COP29 Azerbaijan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Climate Finance Action Fund / Note 2): The Baku Initiative for Climate Finance, Investment and Trade / Note 3): The Baku Initiative on Human Development for Climate Resilience / Note 4): The Baku Harmoniya Climate Initiative for Farmers / Note 5): Multisectoral Actions Pathways(MAP) / Note 6): The Baku Global Climate Transparency Platform

COP29에서 상정된 14개 Action Agenda - 논의사항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이 제안한 기후금융행동기금 출범은 '신규 자원 조성 목표' 대비 우선순위가 낮아 연기된 한편,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과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는 다수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도 동참한다고 발표

1 기후금융행동기금(Climate Finance Action Fund)

- 의장국이 제안한 기후금융행동기금은 출범 연기 발표(11월 15일 현지 시간)
- CFAF 기금 출범 연기의 주된 요인으로 2가지 요인 존재
 - ✓ CFAF는 COP29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신규 자원 조성 목표(NCQG)'에 비해 우선순위 경쟁에서 후순위 차지
 - ✓ 잠재적인 기금 공여 국가 중 개발도상국의 경우 CFAF 기여 금액이 향후 기후금융 중 자국 부담분을 높일 가능성을 우려. 선진국은 CFAF 기여 금액이 NCQG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국제 사회로부터 선진국 책임 회피 등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음을 우려

3 농민을 위한 바쿠 하모니아 기후 이니셔티브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아제르바이잔과 '농민을 위한 바쿠 하모니아 기후 이니셔티브' 제안
- 바쿠 하모니아 기후 이니셔티브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FAST(Food and Agriculture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파트너십 일환으로 진행
 - ✓ FAST 파트너십은 COP27에서 설립된 다자 이해관계자 플랫폼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기후금융 규모·질 강화
- 해당 이니셔티브는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로부터 회복력을 갖추도록 공공 및 민간의 농·식품 시스템 전환에 대한 투자 촉진 목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 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협약의 연장선에 있는 안건으로서 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논의
- 협약의 핵심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2022년 대비 6배(1,500GW) 확대 및 2024년까지 8,000만 km 길이의 전력망을 추가·개조
-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에 대해 참여한 국가는 38개 국 수준
 - ✓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브라질, 이스라엘 등 참여 의사 밝힘
 - ✓ 한국도 서약에 동참할 것을 발표(11월 22일 현지 시간)

4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

- COP29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방안을 논의
 - ✓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등
-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 참여한 국가는 총 35개 국으로 해당 국가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시 유기성 폐기물에서 메탄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 수립 요구됨
 - ✓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 미국 등 참여
 - ✓ 한국 역시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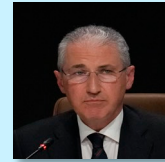
바쿠(Baku) 합의문 채택

최종합의문 주요 내용

COP29 당초 폐막일(11월 22일)을 넘겨 협상을 지속, 예정보다 이틀 뒤인 11월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 현지 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 채택 후 폐막

-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승인**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를 모으고, 이 가운데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이 주도해 마련하기로 합의
- **‘파리협정 제6.4조’ 세부지침 합의**
UN이 운영하는 탄소배출시장 및 관련 거래 규정 승인 내용이 담긴 세부지침들에 대해 합의
-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¹⁾) 용량 1,500GW까지 확충, 2040년까지 전력망 8,000만 km 추가 또는 개조
-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보다 적어도 30% 이상 줄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할 때 유기성 폐기물에서 메탄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목표 설정

최종합의문에 대한 코멘트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

“바쿠 금융 목표(Baku Finance Goal)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과 완화 측면에서 더 야심찬 결과를 기대했다. 각국이 이번 합의를 토대로 더 많은 것들을 구축하길...”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이번 새로운 금융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악화하는 기후 영향 속에서 인류를 위한 보험 정책이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

Source: UNFCCC, COP29 Azerbaijan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Energy Storage System

KPMG의 View (1/2)

COP29 핵심 이슈와 한국이 주도·동참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종합할 때, 국내 산업은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지원 확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시장 부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2035 NDC에 메탄 감축 목표 증대’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COP29 핵심 이슈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 재확인
 - 기후재원 형태, 지급 대상, 기금 규모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양측의 이견 존재
 - 개발도상국은 연간 1조 3,000억 \$ vs. 선진국은 2,000~3,000억 달러 제안
 - ‘최소 연 3,000억 달러’로 최종 합의
- 국제탄소시장 운영 관련 세부 지침 합의
 -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에 관한 파리협정 제6.4조 세부지침 합의
 - NDC 달성 비용 절감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 유치 기회 마련
-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에 공감하나 넷제로 전환 둔화 우려도 상존
 - 트럼프의 당선 영향 등으로 COP29에 정상급 인사 다수 불참
 -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인 것에는 국제 사회가 공감

한국이 주도·동참한 주요 이니셔티브

- 무탄소에너지(CFE¹⁾) 이니셔티브
 - COP28부터 한국이 주도적 추진 중
 -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활용 촉진을 위한 국제적 이행기준 마련할 계획임을 공유
-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동참
 -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용량 1,500GW로 6배 확대 목표
 - 한국 역시 ESS 용량 6배 확충하여 2030년까지 약 25GW 규모 달성 필요
-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 동참
 -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 최소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NDC 수립 시 유기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부문별 목표 및 방안 수립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지원 확대
 - 정부는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해 원전, 수소, 탄소 포집 등 시장 활성화 도모 중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시장 부상
 -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동참을 통해 ESS 6배 확충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전망
 -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며 국제 탄소시장에서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 형성
- 2035 NDC에 메탄 감축 목표 증대 가능
 - 유기성 폐기물 처리 산업에는 NDC에 반영될 목표만큼의 메탄 감축 필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arbon Free Energy로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 이니셔티브와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과 청정수소 등을 포함

KPMG의 View (2/2)

국내 기업은 원자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지원 확대 정책에 주목하여 차세대 기술 선점 및 청정에너지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 부상을 모멘텀으로 활용할 전략을 검토하며, 탄소배출권 시장 모니터링·탈탄소 기술 개발 병행 및 2035 NDC 내 메탄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비 필요

국내 기업에게 미칠 영향은?

<p>1</p> <p>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중심으로 한 CFE 이니셔티브가 COP28을 기점으로 발족되고, 파트너국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이 설립되면서 추진 가속화되며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보자는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 증대 • 따라서 국내 기업은 원자력 산업에 주목하고 SMR(Small Modular Reactors) 등 새롭게 나타나는 시장을 선점하도록 역량 강화 필요
<p>2</p> <p>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시장 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에 한국이 동참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ESS 6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예상 가능 • 2030년까지 현재 4.1GW의 ESS 용량이 25GW로 확대되어야 하므로 이는 ESS 시장이 부상할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p>3</p> <p>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제6.4조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국가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는 국내 민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므로 기업은 탄소배출권 시장 대응 방안 수립 필요
<p>4</p> <p>2035 NDC에 메탄 감축 목표 증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 한국이 동참함에 따라, NDC에 이를 반영한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로드맵 제출이 필수 • 국내에서 유기성 폐기물이 배출, 처리되는 농업, 폐기물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석유 및 정유 산업에서도 중장기적 메탄 감축 방안 마련 필요

전략 수립 방향성

- 정부는 원전과 수전해 시스템을 연계한 수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과제 수행 중
- 원자력과 수소 분야의 차세대 기술 선점은 물론, 청정에너지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기업 간 제휴나 협업 모델 마련도 검토
- ESS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ESS 기업은 모멘텀 활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외 기업은 ESS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마련
- 탄소배출권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중장기 관점에서 탄소감축에 대한 재무적 가치도 상승할 전망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도 병행
- 기업은 NDC 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해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 수립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종합적으로 대응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ESG Business Group

ESG 전략자문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박경수 상무 T 02-2112-6710 E kyungsoopark@kr.kpmg.com	허인재 상무 T 02-2112-3399 E ihur@kr.kpmg.com	이승근 상무 T 02-2112-0992 E seungkeunlee@kr.kpmg.com
---	--	---	---	---

ESG 정보공시/인증자문

김진귀 부대표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황정환 상무 T 02-2112-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손민 상무 T 02-2112-3036 E minson@kr.kpmg.com	한대근 상무 T 02-2112-6607 E dhan2@kr.kpmg.com
---	---	--	--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